

[기고] 충남이 백제사의 중심이 되려면

✎ 이건용 기자 | ⌚ 승인 2022.08.11 14:24

조한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 조한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전북 익산시에선 '백제왕궁'이란 명칭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도로명이 '왕궁로'이고 편의점은 '백제왕궁점'인 식이다. 웅진·사비시기 백제의 도읍지이었던 충남 공주·부여로는 조금 의아스러울 수도 있다. 아직 명확한 왕궁터를 확인하지 못해 백제왕궁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있는데 익산시가 선점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엔 익산 왕궁리유적에 백제왕궁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예전 왕궁리유적전시관을 증개축하면서 이름에 아예 백제왕궁을 넣었다. 왕궁리유적은 인근의 미륵사지와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로 포함돼 2015년 세계유산이 됐다.

당초 왕궁리 절터로 알려졌던 곳인데 발굴이 진행되면서 무왕(재위 600~641년) 때 별도로 지은 이 궁(離宮)을 확인했다. 당연히 왕궁이 존속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통일신라 때는 사찰로 바뀌었다.

최근 백제왕궁박물관을 둘러봤다. 입구에 들어서니 이곳에 왕궁이 있었음을 증명하려는 각종 증거물을 제시했다. 왕궁터가 있는 부여 관북리유적과 비교하고 있다. '수부(首府)' 글씨가 찍힌 기와 조각을 갖고 "부여의 도성 유적에서도 발견된다"며 "익산에 왕궁과 중앙행정기구가 존재했음"을 내세웠다.

익산·부여에서 많이 출토된 하트 모양의 연꽃무늬 와당은 왕궁의 수막새 기와라고 단언했다. 아직 익산처럼 넓은 왕궁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공주·부여로서는 의문의 1패를 당한 느낌이다.

익산은 일본측 기록에 보이는 무왕 때 익산 천도설에 무게를 두고 "30여 년에 걸친 발굴로 흙 속에 묻혀 기억에서 사라졌던 백제왕궁의 길을 다시 찾게 됐다"고 평가했다. 역사상 백제 권역은 넓었다.

한강유역의 백제는 충남·전북·전남지역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갔다. 소위 마한으로 불리던 지역이다. 각 지역은 백제에 속하던 시기에도 일부 개별적 문화양상을 보였다. 최근 이를 근거로 전남권 중심으로 마한역사문화권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백제는 후반기 185년간 공주·부여에 도읍하면서 한반도 남부, 중국 남부지역과 활발한 교류를 했다.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은(華而不侈) 높은 수준의 문화수준을 보인 곳이 금강권 백제였다.

공주·부여로 내려온 백제는 자연스레 마한의 역사문화적 전통도 흡수했다. 백제는 금강권에서 백제문화의 극치를 보였다. 그렇다고 금강권만이 백제문화의 진수임을 주장할 순 없다.

한강권 및 호남권과 백제문화를 함께 논의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지난 2008년 백제의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것을 담은 백제문화사대계 16권을 완간했다. 한강유역은 물론이고 전남·북지역의 마한·백제문화까지 섭렵했다.

이렇게 백제사를 종합하는 역할은 역시 백제도읍지 공주·부여가 있는 충남도만이 할 수 있다. 서울·시나 전남·북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껏 충남도가 백제사를 정립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백제문화사대계가 완간되자 '신라'가 깜짝 놀랐다. 연구가 앞섰다고 자부하던 신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2011년 경북도가 부랴부랴 신라사대계 편찬에 착수했다.

백제문화사대계는 완간이후 많은 학자들이 관련 논문에서 인용하는 등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그간 백제학계는 많은 고고학적, 문헌사적 성과가 있었다. 이를 담는 작업이 필요하다. 14년이 지났으니 증보개정판을 준비해야 할 때다.



이건용 기자 lgy@ggilbo.com